萬法歸一 一歸何處… "마음법 일러준 평생 화두"

〈만법귀일 일귀하처〉



지허 종정 스님은… 15세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 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데스크초대석 | 지허 스님 태고종 제20세 종정

대담=김주일 본지 편집국장
정리=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순천 선암사 경내 대각암 종정원에 주석중인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을 친견하고,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나아갈 길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지허 스님은 소탈하고 천진한 미소 이면에 묵직함을 지닌 외유내강의 선지식이었다. 15세에 출가한 이후 오롯이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지허 스님.

이름처럼 맑고 청명한 기운의 직접 덖은 '천강월차' 한잔과 함께한 소참 법문을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주〉

약인수도도불행(若人修道道不行)이나,
만반사견경두생(萬般邪見競頭生)이로다.
지검출래무일물(智劍出來無一物)이나,
명두미현암두명(明頭未現暗頭明)이로다.

누가 도를 닦는다 하면 닦아지지 않는다.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
지혜의 칼 빼내 남기지 말고 베어 버려야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여러분이 산 신심을 일으키고 산 분심을 일으켜, 언젠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도인이 나와 세상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지허 스님의 첫 일갈이다. 스님은 종정 수락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근본 지향점이 '견성성불'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종도들로 하여금 부단한 정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국불교를 이끄는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태고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본래 면목을 강조한 스님의 법어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지허 종정 스님은 손꼽히는 선승이다. 15세에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등 제방선원과 통영 미래사와 비로암 토굴 등지서 용맹정진해 일가를 이뤘다. 특히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제방의 큰 스님들로부터 가르침과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내홍으로 흔들린 태고종 종지종풍이 다시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지허 스님을 일컬어 한 태고종 중진 스님은 "태고종의 정신을 상징할 뿐 아니라, 지계를 겸비한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스님은 "체구도 작고 천진한 웃음을 지닌 분이지만, 친견해 몇 말씀 들어보면 그가 왜 '작은 거인'이라고 칭해지는지, 그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종정원 다실서 천강월차 한잔과 함께 건낸 지허 스님의 법문은 남달랐다.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과 순간순간의 환희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럼에도 인자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으며, 한편으로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미래를 향한 애정 어린 가르침은 더없이 묵직했다.

"출가? 개인 사정이지, 뭘" 출가 인연을 묻는 첫 질문부터 특유의 천진 미소가 피어났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스님의 뇌리에 자리한 큰 화두였으나, 막상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선배의 죽음이었다. 중학교 3학년 초여름 친한 선배가 수면제 50알을 한 번에 먹고 세연을 접은 것.

"유서에 '無' 자 세 개를 써놨더라고. 충격을 많이 받았지. 화장하고 보니 당시 유행했던 파커 만년필과 허리띠 버클, 그 두 개만 달랑 남기고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그걸 보고 또 유서를 보니 참 삶이 허망하더라고."

허무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곱씹고 또 곱씹던 중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쳤다. "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뭘까?"

1955년, 15세 염세주의적 소년은 선암사에서 무명초를 잘라냈다. 당시 일주문 석양 아래 은은히 울려 퍼지던 저녁 목탁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마음'을 찾겠다는 드높은 원력에도, 몸이 약한 행자는 앓아 눕기 일쑤였다. 어느 날엔 당시 조실인 선곡 스님 부름을 받고 칠전선원에 갔다. "너는 이제부터 차를 다려라" 다각 소임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도반인 '차'와의 첫 인연이 시작됐다.

"다각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된다기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매일 새벽 칠전 뒤에서 찻잎을 덖어 차를 만들고 우려내는 일이었죠. 그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대강 눈대중으로 했지. 그런데도 다 맛이 좋다고들 해. 지금 생각하니 진짜 차 맛이 좋았다기보다는 당시 나를 예뻐한 노장 스님들이 계속 중노릇하게 하려고 그랬지 싶어요.(웃음)"

다각 소임도 몇 달 하다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칠전선원 노장 스님들이 마시는 차의 양이 적지가 않았다. 차를 만들면 금새 없어졌다. 만들다 지쳐 다시 속퇴의 길을 떠올렸지만, 소임이 있기에 무책임하게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딱 3일간 마실 수 있는 차만 만들고 속퇴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3일치 양이 안되는거야. 거참, 만드는 족족 다 마셔버리니까. 내가 그때 차 3일치를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여기 있는 거에요. 무려 65년을. 그때 3일치만 다 만들었어도 그냥 가버릴 수 있었는데 말이야.(웃음) 참 인연이란 게 희한하지요."

몸이 약해 다각 소임을 맡았고, 3일치 차를 만들지 못해 절을 못떠난 어린 스님은 65년 세월이 지난 현재 태고종서 손꼽히는 선지식이자 법의 상징인 종정이 됐다.

"돌아보니 덧없고 다시 없을 요행의 길을 걸어왔어요. 출가해 중이 되고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왔으니 지극한 행운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에 미치지 못하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허 스님이 팔순 노구에도 여전히 화두를 놓지 않은 이유다. 지허 스님은 "'중'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는 수행자여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목사가 성경 읽고 강연하듯이 스님들도 경전 외고 예불만 잘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스님은 성직자가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가 되려면 수행 없이는 절대 안되요, 또 수행 속에 학문이 있지 않으면 대중에게 가 닿을 수가 없으니, 성직자 다움에만 치우치지 말고, 수행자로서 본질을 놓치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A7면에 계속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자재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재)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입원대상자
- 치매, 뇌졸증, 당뇨 등 노인성 질환 환자
- 파킨슨병 등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
- 만성신경계 마비질환 환자
- 중증 질환자

♣ 호스피스병동 입원대상자
- 기대여명이 6개월 전후로 예견된 말기암 환자
-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을 추천 받은 환자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요양병동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

